

임실군, 공약사업 '순항중'

민선 6기 공약사항 추진 집중 점검 결과 추진율 90% 성과 거둬

임실군의 민선 6기 공약사업이 90%의 추진율을 보이며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임실군은 오수면사무소에서 심민 군수의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민선 6기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임실군 실과소장과 읍면장이 참여한 확대간부회의는 민선 6기 공약사항의 추진성과를 되짚어보고, 문제점과 애로사항, 향후 해결책 등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특히 회의는 주요현안에 대한 형식적인 행정을 과감히 탈피하고, 신속하고 변화된 군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자는 의지를 함께 다졌다.

민선 6기 임실군의 공약은 4개 분야 60개로, 분기별 추진상황과 이행평가 및 대외공개 등을 종합한 결과 3월

기준으로 완료 25개와 정상추진 23개 등 추진율이 90%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공약별로 보면 육정호 상수원보 호구역 해제에 비롯해 ▲임실치즈나눔특구 지정 ▲농협수매 약정체결농가 월급제 ▲군 직영 목욕탕 건립 ▲어르신 장애인 우대버스 운영 등 지역발전과 군민생활복지 관련 공약들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축산물생산안전기금 조성과 함께 ▲월기 공동방제사업 지원 ▲사료용 옥수수 조사료 생산작업단 운영 ▲의료원 및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확충 ▲어르신 일자리 확충 등 사업은 정상적인 추진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날 심 군수는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장기 발전에 원동력으로서 공약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심 군수는 또 추진이 미진한 일부 정점사업에 대해서도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심 군수는 전라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7년도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전북투어패스와 봄 여행주간과 연계해 임실군의 다양한 체험관광 코스로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심 군수는 "군민들과 처음 약속했던 시종여일(始終如一)의 자세로 속도감 있게 현안을 챙겨서 군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공약사업이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주민 중심 행정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실=진용영 기자

순창군, 여성·아동 안전정책 최우선 추진

특화 CCTV 9대·공중화장실 안심벨·우범지역 태양열 표지병 등 설치

순창군이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 안전확보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군은 지난해 여성 및 취약계층 범죄예방 CCTV 5개소, 어린이 범죄예방 CCTV를 4개소에 설치했다. 또 여성안심 귀갓길 가로등 17대를 설치해 여성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들 사업은 군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내 여성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들의 다수 요청이 있어 100%군비 확보를 통해 진행했다.

군은 올해도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우선 범죄에 취약한 공중화장실을 경찰서와 함께 조사해 10개소를 선정했다.

이곳에는 5월 중 여성안심벨을 설치

해 범죄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관내 우범지역에 슬라표지병(태양열 표지병)을 설치해 어린이 및 여성 등이 안전하게 발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슬라표지병은 낮에 태양열을 축적해 야간에는 LED 빛을 발광하는 형식으로 사용돼 운전자의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범죄예방 효과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관내 3개 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사, 전문가 등이 참여해 만드는 아동안전 지도 제작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이사업은 학교 주변 통학로를 2~4개 구역으로 나눠 학생들이 직접 위험요인을 확인해 지도를 만드는 사업이다. 안전 지도를 제작해 가정통신문 발송 및 성범죄예방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군은 또 성폭력 및 아동폭력에 대한

지속적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 단속도 강화해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순창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순창군의 아동·여성 안전확보 정책은 순창군청, 경찰서, 교육지원청, 119안전센터, 여성단체협의회 등 9개 기관이 참여하는 순창 아동·여성 안전지역대가 주도적 역할을 진행해 빛을 보고 있다.

이선호 주민행복 과장은 "우리군은 지난해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 CCTV와 가로등 설치를 추진했다"면서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여성안심벨 설치 등을 통해 전국에서 여성과 아동이 가장 안심하고 살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우리소리 익히기에 몸·마음 다한다

남원 생활개선회, 판소리 민요반동아리 운영

남원을 대표하는 여성학습 단체이면서 농업, 환경, 문화를 지키는 농촌지역의 여성리더인 남원시 생활개선회(회장 강정임) 소리문화 지킴이 역할 수행을 위하여 벗님소리(판소리

민요반동아리)가 2016년부터 구성 운영하고 있다.

남원시 벗님소리는(판소리 민요반동아리)는 20여명의 생활개선회원이 주축이 되어 낮에는 농사일에 열심을

다하고, 밤에는 우리소리 익히기에 몸과 마음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흥부제 기간 26회 금과 강도근 판소리 경연대회에서는 단체부분 우수상을 수상하는등 실력을 뽐냈으며, 남원 동아리들의 분이 될수 있도록 이웃사랑실천을 위하여 각종행사의 식전공연의 봉사를 실천하였고, 5월부터는 남원노인시설의 정기적 봉사를 계획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흘날리는 꽃잎따라 춘향시대로'

남원시, '지금은 춘향시대 프로그램' 릴레이 행사

춘향제를 방문하는 20~30대 커플 및 가족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5일간 관한부원에서 체험과 전시로 구성된 "지금은 춘향시대"가 진행된다.

한복을 입으면서 시작되는 지금은 춘향시대는 관한부원내에서 가족과 연인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미션형 체험과 전시 포토존으로 운영되며 세기의 사랑 예술공연과 함께 축제의 주체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춘향시대는 한복입기와 사랑을 주제로한 다양한 포토존에 관광객의 호응이 높았으나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집중력이 부족했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을 재정비하여 내실있고 완성도를 높

인 행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부행사로는 한복체험하기, 오작교 엮고 건너기, 사랑의 연꽃과 소망나무, 사랑의 프로포즈, 지붕 없는 미술관 및 포토존 분야, 사랑의 편지쓰기, 춘향전 즉흥극 퍼포먼스7개 종목으로 진행되며 각 프로그램마다 미션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보다는 개별아이템의 완성도를 높여 사람의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춘향제전위원회는 사랑을 주제로 하는 "지금은 춘향시대"에 구성된 참여형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행사의 매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사랑의 도시 남원을 알리는데 큰 의미를 두고 행사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소식통

관촌면민의 날 행사 성료

제12회 관촌면민의 날 화합 한마당 큰잔치가 1천500여명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관촌면 지역발전협의회(회장 정기훈) 주관으로 지난 15일 사산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심민 군수, 한완수 도의원, 기관사회단체장, 재경·재전 향우회 및 면민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1부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풍물공연, 난타, 민요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비롯해 면민의날 수상식이 진행됐다.

3선 군의원을 지내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김상초씨가 공로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10여년간 지병을 앓고 있는 시어머님을 지극히 모시고 있는 차미경씨가 효열장을 수상했다. /임실=진용영 기자

임실군, 주택가격 1만551호 심의

임실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개별주택 1만551호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오는 28일 결정·공시를 앞두고 지난 13일 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심의 회의는 신영우 위원장, 공시위원, 감정평가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역내 주택 특성 등을 조사·산정한 가격의 적정성 및 필요절차 이행여부 등을 심의했다.

또한 올해 공시 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2.8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현 경제여건을 잘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및 부속건물과 대지를 합한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 각종 처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임실=진용영 기자

남원시, 20일 농업인들에게 첫 월급 지급

남원시가 2017년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520여 농가에 약정농협에서 오는 20일 첫 월급은 지급하게 된다.

벼 재배농가가 지난 3. 31일까지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장정을 체결하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520여 농가가 신청을 하였으며 이들 농가에 대해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약정량에 따라 월 18만원~100만8,000원까지(평균 81만1,000원) 월급을 받게 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에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70%를 농민에게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여 벼 재배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으로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정농협에서 선급

금 형태로 지급하고 남원시가 운용자금 30억원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참여 농업인은 비용부담 없이 출하예정 금액의 70%를 미리 받게 되며, 수확완료 후 2017년산 벼 가격이 결정되면 잔여금액을 환산하여 정산 지급하게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행 첫해지만 많은 농가가 참여하였으며 신청기한을 놓친 농가를 위해 30일까지 추가신청을 받기로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5월분 지급금 4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계획이라며,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가계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농업인 월급제시범사업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 및 지역농협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여기행이나 가볼까?

관촌 사선대
2천년전 네 신선과 네 선녀의 전설을 간직한 사선대는 조각공원 및 체육시설과, 청소년수련원, 인조잔디구장을 갖추고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천담 구담마을
섬진강 강변과 산이 어우러져 한폭의 수채화를 담아 낸 듯한 마을로 포장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옥정호 순환도로 드라이브길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전국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이 길은 수목신수화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옥정호 붕어섬(외얏날)
호수 속에 있는 신비로운 섬!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봄과 가을에는 물안개로 풍경이 절정에 이릅니다.

임실군